## 이강인, UEFA 선정 2020 유망주 50인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19·발렌시아·사진)이 유럽축구연맹(UEFA)이 선정한 '2020년 주목할유망주 50명'에 이름을 올렸다.

7일 '스포탈코리 아'에 따르면 유럽

축구연맹(UEFA)은 이날 공식채널을 통해 2020 년 주목할 만한 유망주 50인을 발표했다. UEFA 는 "2020년 빅뉴스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젊은 인 재 50명을 뽑았다." 라며 "각 대륙의 UEFA.com 통신원들에게 유럽에서 떠오르는 스타들을 추천 받았다." 고 설명했다.

UEFA가 선정한 50명 가운데에는 이강인이 이름도 포함됐다.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다. UEFA는 "한국 대표팀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은 지난 2019년 9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을이렀고 같은 달에는 한국 선수 가운데 최연소로 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에도 출전했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이강인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해 '막내형' 이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으면서 한국 축구의 준우승에 큰 힘을 보탰다. 이 대회에서 이강인은 2골 4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한국 남자선수로는 최초로 FIFA 주관대회 골든볼을 수상하고,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즈에서 유망주상을 받는 등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인정받았다.

UEFA가 선정한 기대주에 이강인 외에 인수 파티(바르셀로나), 메이슨 그린우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레산드로 바스토니(인터 밀란), 라얀셰르키(올랭피크 리옹), 플로렌치누 루이스(벤피카) 등이 꼽혔다.

이강인은 앞서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 가 꼽은 '2020년대 최고의 선수로 떠오를 20명' 에도 이름을 올렸다.

## 고진영, GWAA 선정 2019 올해의 여자 골프 선수

여자 골프 세계 1위 고진영(25·사진)이 미국 골프기자협회(GWAA)가 선정한 2019 올해 의 선수로 선정돼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 타에서 상을 받게 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올해의 선수' 에 등극한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이 미국골프 기자협회(GWAA)가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을 또 받는다.

9일 'Jtbc골프'에 따르면 GWAA는 전날 남 너 및 남자 시니어투어 2019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고진영은 여자 부른 수상자로 성정됐다. GWAA는 회의 비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GWAA는 회원 비밀 투표에서 고진영이 넬리 코다(미국)를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ANA인스피페이션과 에비앙챔피언십 등 메이저 대회에서만 2승을 따내는 등 한 해 4승을 올 린 고진영은 LPGA투어 올해의 선수와 상금왕, 평균 타수(69.052타) 1위 등 주요 타이틀을 독식했다.

1975년 제정된 이 상을 한국 선수가 받은 건 1998년 박세리, 2009년 신지애, 2013년 박인비에 이어 고 진영이 네 번째다.

고진영은 "영광스럽다. 수년간 골프를 취재한 기자



들에게 인정받는 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이 상을 받은 다른 수상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 럽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자 부문에서는 브룩스 켑카(미국)가 로리 매 킬로이(북아일랜드)를 제치고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 다. 켑카는 44% 득표율로 36%를 받은 메킬로이를 제쳤다. 우즈는 3위에 머물렀다.

남자 시니어투어에서는 스콧 매캐런(미국)이 수상 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오는 시상식은 오는 4월 8일 PGA 투어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 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다.

## 레이커스 1위 원동력은 약팀 상대 무패

LA레이커스(IAL)가지난 7일 LA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2019-2020 NBA 정규시즌 뉴욕 닉스와 맞대결에서 117-87로 승리하며 서부에서 가장 먼저 30승(7패) 고지에 오르며 서부 1위를 확고히 했다.

9일 농구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뉴욕전 승리로 6연승, 30승 선착의 기록을 세운 LAL에게는 또 다른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바로 레이커스의 올 시즌 5할 미만 팀 상대 승률이다.

레이커스는 이날 경기였던 뉴욕전을 포함, 5할 미만의 승률을 기록 중인 팀과 총 21차례 맞붙어 21승 전승을 거두고 있다. 그야말로 무자비한 행보. 이에 비

해 5할 승률 이상 팀과 치른 16경기 성적은 9승 7패로 씩 높은 편은 아니다.

5할 승률 이상 팀을 상대로 가장 높은 승률을 거두고 있는 팀은 동부 선두 밀워키 벅스이다. 밀워키는 올 시즌 32승 6패를 기록 중인데, 5할 승률 이상 팀에게 9승 5패로 64%의 고승률을 올리고 있다.

한편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2020년 첫 이주의 선수로 선정됐다.

NBA는 6일 11주차 이주의 선수를 발표했다. 서부에서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동부에서는 밀워키벅스의 아데토쿤보가 이주의 선수로 선정됐다.

